

새만금 예산 최고치 투입 개발 속도낸다

100대 국정과제 포함...올해 1796억원 늘어난 8947억원 개발공사 신설로 공공주도 매립·도로 등 인프라 가시화

올해 추진되는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크게 늘면서 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새해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8947억원으로 지난해(7151억원) 보다 25.1%(1796억원) 늘어났다.

애초 기본계획상 새만금 개발사업 총사업비는 22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연평균 6500억원대에 불과해 올해 예산은 역대 최대치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는 특히 새만금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장,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축 기조에도 새만금 관련 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치로 늘어났다.

여기에 정부는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

공공주도 매립을 추진키로 했다. 지지부진한 민간주도 매립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매립 속도를 높이고 새만금 내부를 거미줄처럼 잇는 도로를 만들면 민간의 개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현재 산업단지·농생명 용지의 경우 농어촌공사가 매립·조성 중이지만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배후도시용지는 민간사업자 미확보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본금 3조원으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신설해 관광·레저·국제협력용지 등 복합용지 매립을 주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노출지 등 여건이 양호한 지역부터 먼저 조성하고 이후 투자수요 등을 고려해 민간 개발을 병행할 계획이다.

개발공사 설립 등에 관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처리절차를 밟고 있으며 관련 예산(510억원)은 새해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출범할 수 있도록 통과 즉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부지 매립·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새만금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부대사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부지(8.84km²·사업비 2300억원 추정) 매립을 2022년까지 마치고로 했다.

잼버리대회가 끝난 뒤 해당 용지는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장 요청 시 새만금개발공사 등 수요자에게 매각한다는 방침이다.

매각대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해 기금 손실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동서도로를 2020년 완공하고, 남북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중 새만금~서간제 구간은 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3년 8월 개통을 추진키로 했다.

신항만은 선박 대형화 등을 고려한 부두 규모 확대와 부두 조기 건설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외 새만금에 태양광·풍력발전시설과 제조·연구기관을 통한 유치해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지역발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착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부안군민 등이 2일 군청 앞에서 풍선을 날리며 세계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부안군 제공)

부안군, 2023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기원

부안군이 새해 시무식을 열고 오는 2023년 열리는 '제 25회 부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부안군은 2일 군청 광장에서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무식을 겸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 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날 스카우트연맹가를 제창하고 풍선 300개를 날리며 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2023년 부안을 찾은 전 세계인을 위해 대회를 차질없이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약·부안=김민준기자 jun@



익산시, 김대건 신부 순교비 등 3곳 향토유적 지정

김대건(안드레아) 신부 순교비가 지역향토유적으로 지정됐다.

익산시는 최근 향토유적심의위원회를 열고 김대건 신부 순교비를 비롯, 송림사 영원전, 정혜원 등 3곳을 향토유적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시 향토유적으로 지정 관리되는 문화재는 문수사 목조여래좌상 등 총 18개로 늘었다.

김대건 신부 순교비는 망상면 나바위 성

지(사적 제318호) 내에 신부 일행이 타고 온 라파엘호와 같은 크기(길이 4.5, 넓이 2.7, 높이 2.1m)로 제작됐다.

나바위는 김대건 신부가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1845년 조선에 첫발을 디딘 포구다.

송림사는 조선 후기 불교건축 연구의 중요자료인 보광전(보물 제825호)이 있는 절로, 이곳의 영원전과 정혜원이 향토유적으로 지정됐다.

영원전은 내부에 출목이 있어 건축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받았고, 정혜원은 17세기 사찰 내 요새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조사된 비지정문화재 학술조사를 토대로 비지정문화재들에 대한 멸실과 훼손방지를 위해 향토유적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ij@kwangju.co.kr

익산시, 시민 격려하는 신년콘서트 연다

19일 익산 예술의전당

익산시는 오는 19일 오후 7시 익산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신년콘서트를 연다.

신년콘서트에는 '시작'이라는 주제에 맞춰 시민들의 밝은 한해를 기원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아름다운 노랫말을 담은 음악들이 선보인다.

뮤지컬 배우 '차지연', 가수 '홍경민', 차세대 소리꾼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봉근', 뮤지컬 배우 '정명은', 에스닉퓨전밴드 '두번째달' 연주 등이 펼쳐진다.

인장주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예술의전당(063-859-3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기자 yij@kwangju.co.kr

확 달라진 정읍시립미술관

버스 차고지, 예술공간 변신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진행

버스 차고지가 예술 공간으로 바뀌었다. 정읍시립미술관은 최근 미술관 뒷마당, 옛 이동형 도서관 버스 차고를 예술공간으로 조성, 활용하고 있다.

지역 작가들과 학예연구실 직원들은 66㎡의 버스 차고에 벽화로 '예술버스'를 그려넣고 어두운 내부에 밝은 색을 입혀 장식했다.

미술관측은 책상과 의자, 선반 등 편의시설도 비치한 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능을 마친 고 3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크스킨, 에코백 프린팅 작업 등을 해보는 '수고했어, 올해도'라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하는가 하면, '문화가 있는 날, 미술관 토크 아트' 프로그램도 실시했다.

정읍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고창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내달 1일부터 모든 구간 이용

다음달부터 고창에서도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농어촌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고창군은 다음달 1일부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경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을 내는 단일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고창군은 앞서 지역 버스회사인 ㈜대한국속과 단일요금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성인은 1000원, 학

생과 어린이는 500원을 내고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기본요금 1400원(성인 기준)에 km당 116.14원을 추가해 최고 4550원을 내야 했다.

고창군은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버스요금 손실 비용으로 9억7000여만 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지원키로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고창=박형진기자 phj@

리모델링 마친 순창 실내수영장 오늘 문 열

순창 실내수영장(사진)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실내수영장은 3일 본격 개장, 이용객들을 맞는다. 군은 지난해 10월부터 2억 4000여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 체력단련실 확장 및 운동기구 보강, 풀장 진·출입로 신규 개설, 공기순환장치 설치 등을 완료했다.

수영장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일주일에 3차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수영교실을 연다.

문의는 문화시설사업소(063-650-

5515)로 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어린이 수영교실처럼 군민들이 수영장을 더욱 가깝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기기자 jyg@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대지 1302㎡ 사할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두암동 2층 남향주택 대지 248㎡ 건평 154㎡ 사할도 적합 3억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향주택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권리 1억6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장흥군 수문해수목장 판선 적합 3458㎡ 5억3천
- 담양군 청평 의향리 9544㎡ 공적등 적합 평당 45만원
- 신안군 압해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순창 북흥면 전 3천여평 포함 산 75780㎡ 4억2천
- 금남로5가 대로변 상업지 2010㎡ 대형건물 적합 54억
- 함평읍 돌머리해수목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월산동 신축3층 상가주택 대지 175㎡ 건물 247㎡ 5억7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8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평 596㎡ 보증금 5천에 월6000선 13억2천
- 월산동 버스도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권리 4억
- 유동 삼성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판선 땅 1578㎡ 경관좋은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마트와 주택(3층) 189㎡ 5억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평당210만원
- 주월동 무릉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담보용 남구 송하동산 22556㎡ 감정 2억4700 매도 1억2천
- 서동 제일파크아파트 7층 105㎡ 은행 5천 임대가능 1억천
- 장성 백암사역부근 모텔 땅 364㎡ 객실17 달방임대중을 2억6천
- 유동 모텔 대지 127 건평 297 감정 10억7천 은행 6억 교환가능 7억2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공산면, 대지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합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 - 4200만원

신안, 비금도 임야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팟섬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타 부동산 교환가
- 매매 - 14억

문의 H.010-3605-5000

공장부지 매매

평동 1차 산업단지 내

40,000m²

- ▶매매가 상담 후 결정
- ▶분할 가능

H. 010-3162-4989

중앙공인중개사 대표 이 장 현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소 떡갈비/튀김 바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9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안구 학산산단9번로 45(창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은 길 66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너지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